

AUTHOR 김순환

TITLE 종교개혁 전후 예배의 고찰과 미래적 전망

IN 복음과 실천

vol.12 (가을, 2006): 182-210

종교개혁 전후 예배의 고찰과 미래적 전망

김순환 교수(성서대, 예배학)

들어가는 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특정 주제의 이론적, 실제적 측면들의 미래 모습을 정확히 예단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최상의 가치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 대안들을 전망해 보고 찾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미래라는 현실은 그 양태와 특성, 심지어 새로운 패러다임 면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단속적인 실체만이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과거와 공동기반을 더 많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곧 과거 역사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며 그런 가운데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통찰과 원리의 도출 또한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있어서도 미래적 전망은 매우 중요한 시안이란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21세기를 전후해서 교회와 사회 문화와의 역동적 조합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개재하는 다양한 변수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 대처,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배의 긍정적 미래를 기대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전망은 역사에 대한 고찰과 그 해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역동적 경험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동일한 본질이다. 따라서 과거 역사에 대한 고찰은 교회가 다양한 사회 문화와 상황 속에서 확장되어가면서 구체화한 예배의 적응적 면모와 원리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시대적 현황 하에서 미래 예배에 대한 원론적 전망을 제시하되 이를 위해 예배 역사,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찬과 세례를 중점적으로 관찰, 검토 하여 특히 개신교 예배신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된 종교개혁을 초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예배역사와의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해 그 비평적 이해의 토대 위에 향후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장으로 자리할 예배에 대한 미래적 전망과 그 전략적 혜안들을 생각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¹⁾

1) 니케아 이전²⁾

기독교가 로마와 같은 도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에 그 지역 안에는 다양한 관습을 여러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지만 세례식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성찬식을 거행하는 등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었다. 예배는 성전이나 공공집

1) 예배의 역사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에는 크게 종교개혁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고 종교개혁 이전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니케아이전시기(325년 니케아회의 전까지), 고진시기(4세기부터 6세기 전까지-서방에서는 604년 그레고리 대제의 죽음까지, 그리고 동방에서는 유스티니안 황제의 세기까지), 그리고 중세시기(동방에서는 1453년 콘스탄티노폴의 멸망과 서방에서는 1516년 종교개혁의 시작까지) 등이다. Cf.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2) 이 시기 안에서 성서시대를 따로 구분해서 관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그 직계 제자들의 교회는 이후 교회 확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권위의 전거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시대의 예배문서들의 자료가 회소한데다가 그 이후 나타나는 자료들이 신약시대의 예배를 상당부분 연속성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신약시대와 동시대 범주 안에 뮤을 수 있는 자료들은 신구약 성

회 장소보다는 주로 개인 집에서 드려졌다. 그 결과 예배의 내용이나 규모가 작고 그 스타일도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³⁾

먼저 기독교 세례에 대한 신약성서 밖의 최초 증거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 시리아에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디다케(Didache)라는 교회규범에서 발견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라. 앞서의 모든 것을 얘기한 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 세례를 주라.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 하라. 그리고 만일 찬물에서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하라. 이것 중 하나가 없으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물을 세 번 부으라. 집례자, 수세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세례 전 금식하게 하라. 그러나 수세자에게는 미리 하루 이를 금식하게 하라.⁴⁾

경을 포함하여 디다케(Didache, 1세기 혹은 2세기 시리아 문서), 클레멘트 제1서신(Clement's First Letter, 90년대 로마 문서), 앤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115년경), 비두니아의 로마 총독인 플리니의 편지(A.D. 112년경) 등을 들 수 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배 공동체는 대체로 그리스 로마 도시 중심지에 사는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들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앤디옥(행 13:14), 테살로니카(행 17:1-2) 등인데 유대인들은 이들 대부분의 도시 속에 보통 7분의 1을 차지하였다. 또 이들은 다양한 사회,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도주 노예인 오네시모, 그의 부자 주인인 빌레몬, 귀중품 판매상이라 할 수 있는 루디아(행 16:14), 전 고린도 회당장인 그리스보(행 18:8),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행 10:22)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가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고전 11:22-22)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특히 세례의 동등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고전 12:13; 갈 3:28; 골 3:11). 먼저 세례는 신약성경 안에서 회심자를 알리며 그를 기독교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수단이었다. 이 때의 세례는 성령세례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고 세례 형식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와 '성삼위 이름으로' 가 혼용되고 있다(행 2:28; 10:48; 마 28:19). 성찬에 대한 성서의 기록들은 단편적이기는 하나 비교적 더 풍부한 편이다. 바울의 서신서(고전 11:20이하)와 복음서(마 26:26-29; 막 14:22-25; 놀 22:14-20)는 물론이고 사도 행전 등에서도 성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행 2:46; 20:7). 또한 전통적으로 성찬에 분명한 기록이 담겨 있지 않다고 여겨졌던 요한복음도 강력한 성찬 신학을 증언하고 있다.(요 6:58이하) James White, *A Brief History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3-19.

3)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57-58.

4) Robert Cabbie, *The Church At Prayer: The Sacrament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8), 15.

이때의 세례 모습은 먼저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으며, 물을 사용하는 양식도 선택적이고, 회심 후 즉시 세례를 주는 모습과 달리(행 8:26-38) 금식 등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오로지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⁵⁾

또 2세기 중엽의 저스틴에 의하면 세례는 일종의 몽학(enlightenment)과 같은 것이었다. 즉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몽학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례식을 포함한 입교예식의 마지막순서는 성찬식사로 끝을 맺었고 이 무렵까지 세례 중에 기름을 바르거나(Anointing) 다른 부수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3세기 초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전승(the Apostolic Tradition)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례후보자(candidates, 헬라어로 청취인, hearer를 뜻하는 catechumens에서 나온 말)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도, 금식, 축귀를 포함하는 준비 과정(세례예비자 과정)과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 세례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⁶⁾ 세례식 안에는 사탄에 대한 거부선언, 축귀의 도유, 3차례의 질문과 세 번 물에 잠기는 것, (물에서 나온 뒤)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옷이 입혀진 뒤 회중에게로 인도되어 이마에 한 차례 더 기름을 바르며 감독이 안수하는 것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식은 이어서 감독과의 입맞춤 교환, 전체 교인들의 공동기도(증보기도), 모든 이와의 평화의 입맞춤, 그리고 성찬식 등으로 끝을 맺고 있다.⁷⁾

성찬은 이 시기에 이미 예배의 통합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다케 1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5) 디다케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4]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 외에는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Cf. W. A. Jurgens(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1-6.

6) 터틀리안도 그의 「세례에 관하여」(A.D. 200)에서 기도, 금식, 고백, 철야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Cf. James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46.

7)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58-159.

[1] 주님의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너의 희생물이 순수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고백한 후에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라. [2] 그의 이웃과 다툼이 있는 누구도 그가 화복할 때까지 너희의 희생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너희 중에 참여치 못하게 하라. [3] 이것은 주님에 의해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곳, 모든 때에 깨끗한 희생물이 내게 드려지게 하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은 이방 중에 놀라우니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⁸⁾

성찬은 이미 입교의식의 끝 순서가 아닌, ‘주의 날’ 예배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빈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지역에 따라 다양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빠르면 1세기 후반에는 일반 공동식사로부터 성찬이 분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 112년경에 비두니아의 총독 플라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두 차례의 집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침에, 다른 하나는 저녁에 있었다.

어느 정해진 날 동트기 전에 만나, 한 신에게처럼 그리스도께 찬송을 교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로 단결합니다. 무슨 범죄의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질, 강도질, 간통, 신앙을 위반 등을 멀리하겠다는 것이고 있다고 주장되는 담보물을 부인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헤어졌다가 음식을 먹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보통의 음식이며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명령에 따라 비밀 모임을 금지시킨 제 칙령 이후 이 관습을 그쳤습니다.¹⁰⁾

이에 대해 용만(J.A. Jungmann)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첫 번째 모임(아침)에서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eucharist)를 가졌으며 두 번째 모임(저녁)에서는 애찬(agape. 식사)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¹¹⁾ 하지만 애찬 속에 성찬이

8) W. A. Jurgens(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1–6.

9) 이 시점은 고린도 교회가 공동식사의 성격을 가진 성찬을 무질서하게 행했던 점에 대해 책망하던 사실에서 그 분리 시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Cf. 고전 11:20–34.

10) Henry Bettenson(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London: Oxford Press, 1947), 6.

11) Adolf Adam, *Foundations of Liturgy: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Practic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2), 16.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만을 남기고 애찬이 사라지고 회당식 예배(설교 중심 예배)와 성찬이 결합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2세기 중엽의 저스틴 마터의 종언에서 발견된다. 거기에는 성경봉독(구약과 신약 추정), 설교, 공동기도, 평화의 입맞춤, 떡과 잔을 드림, 성찬기도(즉흥적), 분병(언급 없으나 추정), 배찬, 해산(언급 없으나 추정)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²⁾ 이 가운데 성찬기도는 유대인들이 식사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¹³⁾ 이러한 기본적 핵심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확장된 형식들, 즉 하나님과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일련의 감사, “거룩, 거룩, 거룩”으로 시작하는 삼성송, 기념(Anamnesis), 성령초빙(성령을 보내달라는 기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일련의 중보기도들이 발전되었다.¹⁴⁾

2) 고전 시대

4세기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는 예배의 규모와 내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예배가 과거에 주로 가내 환경에서 행해졌던 것이 황제나 부유한 기부자의 기금으로 지어진 큰 바실리카(법정 혹은 공회당 등으로 쓰이던 곳)나 사원 등에서 드리게 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 이 시기에 감독이나 성직자들은 관료적 신분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상징하는 복식도 생겨나게 되었다. 4세기에는 예배문서들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표준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아리우스주의나 그 이후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처하면서 예배에서 사용될 고정된 본문을 만드는 문서화 작업이 촉진

12) Bard Thom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d Publishing Company, 1962), 8–9.

13) 이에 대한 논의는 Louis Bouyer, *Eucharist: Theology and Spirituality of the Eucharistic Prayer* (Notre Dame/London: Univ. of Notre Dame Press, 1968), 91이하를 참조하라.

14)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60–162.

되었다.¹⁵⁾

4세기 이후로 기독교 세례에 대한 풍부한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감독이나 사제들에 의해 성례전이 있기 전 혹은 후에 성례전에 관한 설명과 해석을 위한 자료인 '신비교육' (*Mystagogiae*, 신비에 대한 설명) 등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시릴(Cyril of Jerusalem), 암브로우스(Ambrose of Milan), 요한 크리소스토ム(John Chrysostom), 그리고 시리아의 테오도르(Thodore of Mopsuestia) 등의 신비교육 등이다.¹⁶⁾ 세례는 엄숙, 신비, 비밀스러움 속에서 오랜 준비기간을 요하는 의식이 되었다. 세례식 준비 과정은 길면 3년에 걸쳐 있었고 그 마지막 사순절 시작 시기에 점증을 거쳐 등록한 뒤 사순절기간 내내 기도, 금식, 그리고 교훈 등, 강력한 준비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부활절 전야에는 세례식을 함으로써 마쳤다.¹⁷⁾

콘스탄틴 이후 예배 규모의 변화는 성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큰 공간과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규모가 팽창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말씀을 읽는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몇몇 엄숙한 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식들은 복음서 앞 봉독문의 수를 보통 신약에서 발췌한 본문 하나로 단축하였다. 성찬기도도 초기의 즉흥성과 달리 고정적 형태를 띠어가기 시작한다.¹⁸⁾ 그 내용면에서도 삼성송(sanctus)이 들어가고 훨씬 장구하고 화려해 지게 된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을 비롯하여 희생제사로서의 분위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220년 작고), 터틀리안(240년 작고), 오리겐(251년 작고), 트위스의 사라피온(Sarapion of Thmuis, 340년), 예루살렘의 시릴(347년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내용) 등의 문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5) Ibid., 165–166; Adolf Adam, *Foundations of Liturgy: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Practice*, 18.

16) Robert Cabbie, *The Church At Prayer: The Sacraments*, 19.

17) 이때에 세례 전에 전신에 기름을 바르거나–시리아 전통에서 왕이요, 메시아로서의 분위기를 뜻하였으나 정결과 축복의 의미를 갖기 시작–새 흰옷을 입는 등의 절차들이 채용되었다. Cf. Ibid., 20–60.

18) James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43.

당신의 곁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보좌들과 통치자들과 법과 권세들이 함께 합니다. 당신의 옆에는 가장 존귀한 여섯 날개의 두 세라핌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두 날개로는 발을 덮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거룩'을 외칩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거룩'의 외침을 받으소서. [이하 삼성송]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휴식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죽은 이들의 이름들이 낭송된다] 당신께서 모든 이들을 아시니 이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소서.¹⁹⁾

이어서 386년경의 문서인 사도현장의 성찬기도에서 이런 측면들은 확고해진다.

체루빔(cherubim)과 세라핌(seraphim)이 천천의 천사장과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하늘과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영원부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린 거룩한 사람들을 모두를 위해 또한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patriarchs), 예언자들, 의인들, 사도들, 순교자들, 고백자들, 감독들, 사제들, 부제들, 부부제들, 봉독자들, 찬양자들, 동정녀들, 과부들, 평신도들, 그리고 당신께서 아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를 비칩니다.²⁰⁾

이들 성찬기도는 비록 동·서방 각각 여러 전통들에 따라 차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 삼성송, 제정사, 성령초빙, 중보기도 등에서 공통성을 띠고 있었고 점차 미사에서 성찬이 희생제사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 William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20.

20) 남호, 「초대기독교예배」(서울: 기도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111–12.

3) 중세시대²¹⁾

중세를 경과하면서 로마의 예식은 서방 다른 지역 예식들을 능가하게 된다. 그러나 로마 외의 주요 서방예식들인 암브로우스 예전(밀란), 갈리아 예전(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벨자움), 그리고 모자레비아 예전(이베리아 반도) 등도 한동안 창궐하였다. 8세기에 이르러 프랑크의 왕 페핀과 수도사 알쿠인의 도움을 받은 그의 아들 샤를메인에 의해서 예전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나온 예식은 갈리아 요소와 로마요소가 혼합된 모습이었다.²²⁾

중세 서방의 예배는 라틴어에 기초하여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부는 교회의 동쪽 벽 끝에 설치된 제단을 향하고 회중들은 등 뒤로 한 채 대부분의 예식을 인도하였다. 그들 간에 비밀스런 기도도 늘어났고 성경봉독도 이전에 갈리아 예전 등에서 발견되던 세 종류, 즉 구약, 서신서, 복음서 중에서 구약은 없어졌다. 그러나 설교도 중세기가 진행되면서 특별한 날 혹은 감독이 예배를 주관하는 날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²³⁾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교회에서 성가자석이 길게 늘어나 제단과 예배의 중심 행위로부터 더욱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경건의 초점도 크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 21) 기독교예배의 역사를 다름에 있어서 7세기이후에는 동방과 서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은 곧 7세기 중반에서부터 과거 기독교지역이었던 근동을 지배하게 된 이슬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애베소회의(431)와 칼세돈 회의(451)에 뒤이어 동방의 기독교는 시리아와 이집트의 대부분, 그리고 단성론적 입장에 섰던 아르메니안 기독교와 분열되었다. 여기서 특히 콘스탄티노플이 의존하고 있는 비잔틴 예식을 볼 필요가 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예전은 중세에 비잔틴 예식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저전이나 적에 의한 포위 등과 같은 도시의 삶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하고 유스티니안 대성당뿐만 아니라 광장이나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행진예배를 포함시킨 시정 달력을 모든 교회가 사용하였다. 11세기이후에는 과거의 야외 행진 등이 어떤 의미에서 축소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예배 안의 여러 행진 의식들이 되었다. 오늘날 비잔틴 성찬식이 콘스탄티노플 성당에서의 관습들을 반영하는 반면, 비잔틴 의식의 매일 기도회(성무일과)는 수도원에서 유래된 것이 많았다. Cf.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72-74.
- 22)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74.
- 23)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Edinburgh: T&T Clark, 2000), 58-59.

임재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물의 변화와 그 거룩한 신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사에서 사제만이 성찬을 받고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었다. 11세기 무렵 무교병 사용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포도주가 신자들로부터 배제되었고(아마도 거룩한 피를 바닥에 흘리게 된다는 지나친 두려움에 기인) 결과적으로 성찬은 성변화 된 떡을 보는 것을 정점으로 하는, 눈으로 보는 사건이 되었다. 사제와 사람들의 예배는 '오직 사제가 머리 위로 든 연약한 등근 떡조각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건강, 그리고 축복을 위해 성찬성물로 화(化)한 그리스도에게 인사하고 간구하기 위해 어떤 강한 표현을 찾는 그 절정의 순간에만 집중되었다.'²⁴⁾

세례식은 동방교회가 세례, 도유(후에 견진으로 발전), 성찬을 통합 시행한 반면(감독이 참석치 못한 경우에도) 서방의 교회들은 세례 후 도유를 감독의 임무로 국한하는 바람에 단일성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교회가 성장하고 시골지역으로의 확산되면서 감독들의 방문이 어렵게 되자 유아의 경우 곧바로 도유(감독의 임무)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유아가 출생 후 원죄를 가진 채 죽지 않게 한다는 목적으로 세례는 받게 했지만 도유(견진)는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이를 계기로 서방에서 견진식이 따로 분리되어 발전하게 되었고 이 견진식이 신앙의 강화를 위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시기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²⁵⁾

- 24)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75;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62. 미사는 자칫 갈보리의 반복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단번에 다 이룬 회생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미사의 세부 순서들은 고난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상징하였다. 평신도용 미사예식서들을 보면 독자들이 그것을 잘 관찰하도록 권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제의 예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복-성대(maniple, 聖帶). 미사 집례 때 사제가 원팔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서 지금은 폐지됨)는 예수께서 빌라도로부터 헤롯에게 끌려가고 올 때 사용했던 줄을, 제의(chasuble, 祭衣. 예전적 교회에서 미사 집례시 입는, 머리 쪽이 터 있는 판초 모양의 제의)는 그가 조통을 빙았던 자색 옷을-떠올렸다. 봉헌식에서는 동방사의 예물들이 상기되고 반면 미사 후 사제가 출발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를 모방한다고 믿어졌다. Cf.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63.
- 25) John F. Baldovin,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176.

4세기에 기독교 국교화 후 세례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6세기 이후는 유아세례가 보편화 되었다. 중세 세례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1614년의 「로마예식」(Ritual Romanum)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긴 학습 기간은 생략되고 대신 예식의 첫 부분에 약식으로 들어가 있다.²⁶⁾ 세례는 세 부분으로 세례학습(catechumen), 세례못 축복, 그리고 세례식으로 구성되었다. 세례학습은 보통 문에서 시작하는데 일련의 기도와 축귀를 수행(세례 받을 사람에게)하였고 간혹 신앙 안에서 보존됨을 상징하는 소금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어린이 축복 기사, 에바다(신부가 그의 손에 침을 뱉어 유아의 귀와 코에 빌라 하나님 말씀에 수용적이 되게 함), 축귀 등이 있었다. 세례학습 부분이 마쳐지면 세례식 무리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세례수 축복이 있었다. 이는 간혹 삼위 일체를 초빙하는 길고 정교한 기도로 되어 있었다. 세례식은 대부모에 의한 사탄 거부(renunciation)으로 시작하고 모인 사람들에 의한 신조낭송을 통한 확인에 이어 사제는 아이를 잡고 세 차례 물에 넣었다. 이어 유아에게 흰 옷이 입혀지고(그리스도의 무죄성 상징), 기름(chrism)²⁷⁾이 빌려졌으며 초가 쥐어졌다.²⁸⁾

26) 유아세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되면서 결국 교육적 기능은 상실되었다. 교육적으로 행했던 세례예비자 과정은 단지 짧은 예전 행위로 축소되어 고해 제도와 함께 주어졌던 윤리적 가르침을 제외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약 천년동안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Cf.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예배학 개론」, 김상구 역, (서울: CLC, 2006), 248.

27) Gordon Wakefield, 65–68; Herman Wegman, *Christian Worship in East and West: A Study Guide to Liturgical History*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5), 226–27.; Mark D. Tranvik, "Baptism" in *The Or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I*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15.

2. 종교개혁의 예배

1) 루터주의 전통

어거스틴 수도사이며 뷔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1483–1546)는 1517년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후 예식의 개정들을 통해 그 자신의 입장을 내어놓았다. 루터는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성직자 독신주의, 수도원생활, 순례, 평신도에게서 성찬 포도주 배제, 사제의 중재 기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찬에서 반복되며 죄의 용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 등을 단죄하였다. 루터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하고 중요시하였지만 그가 개정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설교였다.²⁹⁾

세례에 관한 첫 개혁에서 루터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채 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그는 부가적인 의례나 꾸밈, 십자가 굿기, 소금수여, 에바다 의식(숨을 내불어 쉬면서 '열리라'고 말했던 고대시대 유래의 순서), 기름바름, 흰옷 입기(백의를 상징해 모자를 써움), 그리고 양초 수여(세례 직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 준비한다는 의미) 등을 남겨놓았지만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 축귀를 필수로 보았다. 소금을 준 뒤 그는 홍수기도(홍수와 홍해 횡단을 유형으로 보아)를 하였다. 그는 침바름과 에바다와 [사단에 대한] 거부선언과 공개 신앙선언 앞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린이 축복'을 포함시켰다. 루터의 두 번째 규범은 널리 사용되었는데 십자가 굿기를 제외한 외적 의식(ceremonies)들을 없앴다.²⁹⁾

성찬에 관한 루터의 첫 개혁은 1523년의 예식서인 '라틴미사' (Formula Missae)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중세 예식을 간략히 줄인 개정판이었

28) Susan White,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185–86.

29) 이 점은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의 뷔서도 마찬가지였다. 세례는 단순한 사람들도 그 간결한 행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짧게 시행되어야 한다. 1537년 이후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규범은 좀 더 언어적 표현이 많아진 반면 모든 외적 의식들은 사라졌다. Cf.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95.

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로 쓰이고 많은 전통적인 관행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 예식서와 기도문들은 회생제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은 제거하였으며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 성찬의 떡과 잔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성직자들만이 아닌), 그리고 주기도를 상호 암송하는 것 등, 전통적인 미사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첨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세 성찬기도로부터 남은 것은 ‘마음을 드높이’(Sursum Corda), 서문, 제정사(성변화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삼성송(Sanctus) 그리고 베네딕투스(Benedictus). 마 21:9절에서 인용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떡과 포도주의 거양성체(elevation. 성찬성물을 성변화 후 높이 들어 올려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혹은 중세에는 경배하도록 한 행위), 그리고 주기도가 이어졌다. 처음에 그는 기독교 전체가 매일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523년에 그는 성찬식이 좀더 자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한 주일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결정했다.³⁰⁾

이어 1526년 보다 과감한 예배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독일미사(German Mass)를 만들어 내었다. 이 독일미사를 위해 독일어 찬송(많은 것들이 루터 자신에 의해)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이후 루터교회 음악예배의 풍부한 바탕이 되었다. 루터의 미사에서는 말씀의 예배, 곧 서신서, 복음서(이어 성찬성물이 준비되는 동안에 사도신경이 이어짐)와 설교가 있었다. 성찬예배는 추가적인 기도문을 뗀 의역된 주기도와 함께 시작했다. 루터는 성찬기도를 제정사로만 줄여버렸다. 그러나 그는 거양성체(elevation)는 보존했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올리심을 유형화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찬송가는 전체 예배 내 적절한 곳에서 불렸고 예배는 아론의 축도(Aaronic blessing. 민수기 6:24-26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 아론에게 명한 축복 형식문으로서 그 내용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로 시작)로 마쳤다. 루터는 이 축도를 예수께서 그의 승천 때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루터는 츠빙글리와의 논쟁에서 보듯이 비록 원문에서 동사가 없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성변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성물에 함께 한다고 믿었다.³¹⁾

기독교 입교예식도 개정되었다. 1523년에 처음으로 세례예식서를 출판했는데 중세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었다. 단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축귀를 없앴고 세례못 축복 대신에 자신의 홍수 기도(Flood Prayer)를 넣었다. 이어 1526년에 비판적 내용을 참조하여 개정 세례 규범(Order of Baptism Revised)을 내었다. 여기에서는 중세 세례의 의례들 중에서 소금수여, 에바다(침을 입과 코에 바르는 의식), 축귀(exorcism)의 축소, 도유, 그리고 볼 밝힌 초를 주는 것 등을 제거했다.³²⁾

2) 개혁주의 전통

스위스의 개혁가 올리치 츠빙글리(1484-1531), 마틴 뷔서(1491-1551), 그리고 존 외콜람파디우스(1482-1531) 등은 루터의 예배신학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그가 중세적 요소들을 남겨놓은 것을 부적절하게 보았다. 특히 성찬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하신다는 주장에 대해 비록 이것이 화체설과 결별한 것임에도 여전히 중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듯하다. 결국 루터와 스위스의 개혁가들은 결국 마르부르그 회의(Marburg Colloquy, 1529)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되고 말았다.³³⁾

츠빙글리는 ‘성례전’(sacrament)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31)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72.

32)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예배학 개론」, 252. 1523년의 세례예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입으로 불기(exufflatio)/이마와 가슴에 십자가 표시/*기도/*소금수여/노아홍수기도/
축귀: *그려므로 너 더러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들으라 나는 너를 내쫓는다/기도/성
경낭독(막 10:13-16)/주기도와 함께 암수(무릎꿇음)/*에바다 의식/축복의 말씀과 함께
교회로의 입장/절교의 선언/신앙고백/세례문답(어린이)/세례/서언과 평화의 기원과 함
께 기름바름(*기름바름)/세례복 수여/*세례초 수여 등이다. 여기서 *표 부분들이 1523
년 예식에서는 생략되었다.

33) Susan White,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187.

30)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71-2.; William Maxwell,
77.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신비’(mystery)라는 말—예를 들면 예배소서 5:32절에 나온대로—의 불행한 변형이라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원래적 의미, 곧 ‘소송 당사자가 제단에 예치하는 담보물이요, 이 긴 자가 그의 담보나 돈을 도로 찾아간다’는 의미를 중시하였다. 이는 또한 서원이면서 군인들이 그들의 장군에게 복종하여야 하는 맹세가 되었다. 그는 ‘성례전은 첫 예식이나 서원식 외에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승자 외에는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일정액의 돈을 예치하듯 이 성례전으로 입교하는 사람도 자신들을 끌고 서원하며 그리고 말하자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에 봉인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적 사물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에만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즉시 역사하는 성령에게만 속한 것을 상징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오로지 성령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이다.³⁴⁾

그러나 그는 성례전을 없애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증언하며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의 표로 주시고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임하여 그의 백성들과 함께 먹는 것처럼 그가 기억되게 하는 반지와 같다고 보았다. 성찬성들은 말씀[로고스]과 성령이 마음에 깊각들에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암시한다. 그러나 성례전에 효과를 주는 것은 믿음만이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츠빙글리의 예식은 황폐하며 신비를 결하고 있다. 천상적 차원이 없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다. 성변화도 중보도 없다. 더 이상 성찬은 주일 예식이 아니

34)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72–73.; “1535년의 「취리히 예배서」(The Zurich Liturgy)를 만든 츠빙글리는 많은 말이나 교훈, 의식적인 순서보다는 단순성과 고요함을 선호했다. 기념설로 알려진 그의 성만찬 신학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상(contemplation), 친교(fellowship), 감사, 도덕적 열정이다. 특히 상상력이 고갈되거나 마음이 혼란함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두 가지 관상의 주제를 다른 었는데 하나는 성찬의 성물로, 이들은 매우 빨리 효과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자극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관상은 성찬을 통해 성물 자체의 깊은 의미, 즉 갈보리 언덕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의심 없이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듯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f.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78.

다. 넌 중 네 번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성찬도 얇은 채 받는다. 이것은 츠빙글리에게서 기원된 관습이다. 개혁주의 예식들 사이의 차이라면 그것은 어떤 이들은 성례전을 어떤 존중스런 도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순성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이다.³⁵⁾

세례와 관련하여 츠빙글리는 처음에는 진정한 세례는 내적이며 영적이고 외적인 의식은 불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유아세례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들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되기에 세례를 금해선 안 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의 간결한 예식에는 홍수기도, 어린이 축복 낭독, 그리고 기름바름—이때는 기름바름이 아닌 단지 흰 옷을 입힘—가 들어 있었다.³⁶⁾

개혁교회의 예배양식에 영감을 제공한 것은 칼빈의 ‘예배형식’(Form of Church Prayers…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Ancient Church, 1542)이었다. 칼빈(1509–1564)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그의 모든 예배의 바탕은 교육적이었다. 긴 권면과 교훈적인 기도문이 전체를 이루었다. 성찬에서 로마의 성찬기도(Canon)는 제정사 하나로 대치되었고 양심 점검을 위한 교훈이 이어졌다. 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성찬 참여가 금지되었다. 칼빈은 예배음악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편에 대한 운률본(Metrical version)들이 공적 예배에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오르간을 포함해서 악기사용은 단지 사람들을 허영심으로 즐겁게 해준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칼빈은 또한 미사의 희생제적 성격이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돌로 만든 제단이 나무로 만든 제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³⁷⁾ 사실 칼빈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마틴 뷔서(Martin Bucer)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개혁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 니케아신경의 대안이 되었고 로마의 축도 대신 아론의 축도를 하기도 했다. 독일 운률로 된 시편과 찬송가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

35)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74.

36) Ibid., 95–96.

37) Susan White,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187–188.

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한동안 상당한 혼용이 있긴 했지만 '미사' (Mass), '신부' (priest), '제단' (Altar) 등을 대신하여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 '목사' (Minister) '거룩한 식탁' (Holy Table)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배의 여러 부분에 대한 라틴어 이름이 점차 독일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신서와 복음서는 더 이상 옛 성서정과 (lectionaries)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고 통독으로 좀더 긴 분량이 읽혀졌다. 설교는 정규적으로 있었고 간혹 한 봉독문에 한 설교가 행해졌다. 의전은 매우 간소화되었고 거양성체도 없어졌다.³⁸⁾

루터주의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유아세례를 인정하였다. 칼빈의 입장예식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중세의 것들을 크게 단순화시킨 것이고 예수께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막는 모든 예식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칼빈은 세례탕이 반드시 교회의 전면에 있어야 될 것과 세례는 공적인 행위임을 요구하였다. 병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허용하였던 산파에 의한 세례를 칼빈이 통렬히 비난한 것은 바로 이런 비밀성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³⁹⁾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을 주저했지만 세례가 주일에 있기를 선호하였다. 세례는 권면(본질적으로 세례에 대한 설교)으로 시작하였고 칼빈은 세례를 "진정한 표지" (true sign) –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전달 (communicated us)되는 –로 보았다.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이어 기도와 부모, 대부모에 대한 권면 –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 이 나오며 어린이 이름을 짓는 의식 – 인정을 받은 이름 리스트를 가지고 – 이 있었다. 이어 세례가 3위 이름으로 수행되고 감사와 축도로 마쳐졌다. 특히 그는 '기름바름, 촛불, 그리고 다른 허풍들'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고 보고 모든 축귀와 함께 없애고 말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⁴⁰⁾

38) William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91.

39) Susan White,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188.

40)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96.; Mark D. Tranvik, "Baptism" in *The Or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I*, 116.

3) 영국교회 전통

영국의 개혁은 중세와 개혁자들의 입장과 비교하여 볼 때 중도적인 입장이었다. 즉 외적 형식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보존하였으나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한 것이 분명하다. 형식은 중세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것이었지만 바탕에 깔린 신학은 칼빈보다 오히려 츠빙글리의 급진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루터주의, 츠빙글리주의, 칼빈주의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교회 예배의 기념비적 작품은 크랜머가 깊이 주도한 두 차례의 「공동기도서」 (1549, 1552)를 들 수 있으며 이후 1559, 1604, 1662년에 이어서 개정들이 이루어졌다.⁴¹⁾

1549년 판 「공동기도서」의 세례예식은 성찬식이 아닌, 성무일과 (매일의 아침과 저녁의 기도회)의 배경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교회 문에서 간단한 권면과 홍수기도 (사름 예식에서와 같이)로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이마와 가슴에는 십자가를 성호를 그었다. 기도 (사름 예식의 것과 루터의 두 번째 예배서의 것을 결합시킨 것)가 마쳐지면 축귀 (사름 예식보다 훨씬 더 간결한)가 있다. 이어 마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어린이 축복 내용이 읽혀지고 간결한 설명이 있다. 이어서 주기도가 있고 어린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긴 사도신경이 이어진다. 이때 아이들은 세례못에 인도된 상태이며 거기서 그들은 – 혹은 어른들이 그들을 대신해 – 악을 거부하고 그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선언 (사름 예식에서 유래한 질문들이 있음)을 한다. 아이의 온 몸이 물에 확실히 닦도록 하는 세 번의 침수 (浸水), 기름바름, 흰옷 입히기 등이 있었고 최종의 기름바름 (성령의 기름부으심 상징)이 있다.⁴²⁾

41) Cf. Susan White, 190.; James White,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108.

42) 영국교회의 개신교적 세례의식의 출현에 앞서 1540년대 초에 나온 「의식에 관한 지침」 (*The Rationale of Ceremonial*)은 영국 가톨릭 예식이었던 사름 예식 (Sarum rite)을 지지하고 있다. 1537년에 나온 「주교지침서」 (*The Bishops' Book*)는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아는 죄 속에서 태어나며 이것이 세례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중세적 입장에 서서 재세례파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1543년에 나온 소위 「국왕 지침서」 (*King's Book*)는 더욱 보수적이며 7개의 성례전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소 개신교적 영향이 없지 않으나 세례를 통해 유아 사망자들이 의심 없이 구원받음을 선언하고 있다. Cf.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97–98.

1552년 판 「공동기도서」에 보면 예식은 세례못에서 시작하는데 1549년판 개회기도(홍수기도)를 약간 개정한 것을 가지고 시작(십자가 성호 굿기 없이)하였다. 이어 마가복음 10장이 읽혀지고 대부모들에게 질문(1549년 판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1552년 판에서는 대부모들에게 주어진다), 이어 옛 아담의 장사(葬事) 지냄을 언급하는 일련의 짧은 기도들과 세례못 축성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있다. 아이들의 이름이 세례에서 처음으로 사용(1549년 기도서와 중세 예식들 속에서는 교회 문에서 사용되었었던 것)된다. 이어 십자가 성호굿기(교회 문이 아니라 회중에게 영접되면서 이마에)와 함께 1549년 판에서 나온 말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와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라는 언급이 등반된다. 그러나 흰 예복을 입는 것과 향유로 바르는 것은 없어졌다. 이어 세례 후 주기도, 최종 기도(새로 삽입)가 있는데 '유아가 성령을 통해 중생하고 거룩한 회중과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하는 내용이다. 이어 대부모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즉 수세자들에게 설교를 듣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들이 신경, 주기도, 그리고 영어 십계명과 기독교인이 그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⁴³⁾

1549 판 「공동기도서」의 성찬식은 '정결을 위한 기도' 와 더불어 입례송으로 시작하여 주기도와 모음기도(collect)[집례자], 아홉 번의 자비송[영어], 대영광송, '그날의 기도', 국왕을 위한 기도, 서신서 봉독에 이어 층계송(gradual) 없이 복음서 봉독, 니케아 신경낭송, 그리고 설교(간혹 촌평이 있기도 함)로 이어진다. 성찬식에서는 권면, 봉헌(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성찬기도로 이어진다.⁴⁴⁾ 성찬기도 안에는 '마음을 드높이', '서도' (preface)[라틴 판으로부터의 번역], 삼성송, 성변화기도, [하나님께] 죽은 자의 위탁이 있다. '우리와 저들이 세상의 끝 부활 때에 그리스도의 우편에 앓기를 구하는' 내용

43)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98–100.

44) 이 시기에 크랜머는 미사가 제사라는 믿음을 포기하고 진정한 제사(sacrifice)는 친미와 감사요. 우리 자신을 드립이라 주장한다. '성찬기도(Canon)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기념이요 성경 속 희생의 드림을 기념하는 것과의 결합이었다. 크랜머의 성별기도는 라틴어 성별기도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한 것이었다.

이다. 성변화 기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귀히 사랑받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는 내용도 없다. 다만 성찬성물 거양 [들어올림]이 없이 혹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이 없이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의 이 선물들과 떡과 포도주 창조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귀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는 성령초빙 기도가 있다. 이어 아남네시스(Anmnensis)가 이어지고 '우리의 이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그리고 비록 희생물을 드리기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우리의 봉헌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뒤 따른다. 그런 다음 송영(doxology, 頌榮)이 빠진 주기도(응답이 딸리고 끝의 수식부분이 축소된 채)가 이어진다. 평화의 나눔이 이어지고 '진실로 행하는 당신은...', 고백, 사죄와 위로의 말씀, 겸손한 접근의 기도, 배찬사(配餐辭)가 나온다. 배찬 중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The Agnus Dei)을 부른다. 성찬 후 순서는 일군의 성경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어서 인사와 감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몸과 피로 된 영적 음식' 임과 성찬의 중요한 결과로서의 '연합한 회원임'을 강조하고 평화의 나눔(빌 4:7)과 축도로 마쳐진다. 마지막 지시문은 평일에 생략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새김[글이나 그림]도 없는 누룩이 없는 평범한 떡, 그러나 자르기 용이하게 만든 웨이퍼(wafer)보다는 더 길고 두꺼운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떡은 사제가 입에 넣어주도록 하여 미신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집에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랜머는 보수적인 신자들이 자국어와 개신교적 교리–여러한 의식에도 얹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을 확고히 하면서 화체설을 거부하는–의 충격에 익숙하도록 돋고자 하나의 과도기적 예식으로 1549년 판을 의도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⁴⁵⁾

1552년 성찬식은 이제 미사라는 말을 없애고 '주의 만찬 혹은 거룩한 나눔'이 되었다. 정결을 위한 기도, 응답이 딸린 십계명, 그날의 기도와 왕을 위한 기도(두 개 중 하나), 서신서 봉독, 복음서 봉독, 신경낭송, 설교, 가난한 자를 위한 현금 봉헌(이때 사용하는 기도는 '이곳 지상에서의 분투하는 교회'를 강

45) Gordon Wakefiel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85–88.

조하며 죽은 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세 개의 권면(주로 자기검증과 참회를 부각시킨), '일반 고백과 사죄,' '위로의 말씀,' 성별기도가 빠진 성찬기도 (1552년판의 특징), 쌍투스, '겸손한 접근' (humble access), 배찬사(配餐詞), 봉헌(oblation)과 감사의 기도들(여럿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대영광송, 그리고 찬미의 노래로 끝을 맺는다. 예배의 끝에 있는 예식서 지문(rubrics, 예식서 안에서 본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붉은 색으로 인쇄된 지시사항)에는 누록 없는 것이 아닌, 곧 다른 음식과 함께 매일 먹는 떡의 준비에 대해 적고 있다. 통상의 순수한 흰색 빵이어야 하며, 잔물은 부교역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변화의 항구적 효력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성찬성물들은 세례의 물도 그렇듯이 잠깐 '동안' 성스런 사용을 위해 구별되기는 하지만 곧 초자연적 속성이 없는 보통의 상태로 되돌아온다. '흑색 지시문' (black rubric, 활자체가 '검고 선명하게 인쇄된 지침' 이란 사실에서 이름을 따온 것)도 있다. 크랜머는 수찬할 때 무릎꿇기를 허용하고 우상숭배가 아닌, 존경과 선량한 질서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들은 자연적 상태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천국에 있다는 것이다.⁴⁶⁾

나가는 말: 평가와 미래적 전망

예배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장이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다각적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들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예배의 온전한 구현, 그리고 미래 예배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안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앞서의 전개 내용에 대해 평가해 보고 그 전망을 내다 보고자 한다.⁴⁷⁾

46) Ibid., 88–91.

47) 필자는 이미 「21세기 실천신학개론」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예배의 지향점을 적은 바 있다. 그 내용은 a. 하나님에 중심인 예배, b.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 c.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d. 성경의 권위가 존중되는 예배, e. 복음의 균형이 있는 예배, f. 상징성을

1. 평가

1) 메시지 매개의 관점: 상징성의 오용과 올바른 회복

복음의 매개인 예배는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성서시대의 경우 대체로 구두적이면서 문서의 제한적인 활용으로 인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전통이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서시대 혹은 원시시대를 지나 초대교회 후반으로 나아가면서 상징성의 역할은 점차 크게 강화되어 간다. 따라서 설교와 성찬의 양축이 예배의 전형으로 자리잡고 중세에 이르러는 그 가운데 상징적 영역인 성찬이 점차 이성인지적 영역이랄 수 있는 설교를 능가하여 메시지 매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징성에 대한 과다한 전달 능력의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 인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예배에 대한 왜곡 이해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내용과 전통에 대한 회중의 무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무지로 이어졌다. 상징성이 대표하려고 하는 실재는 그만 상징에 갇히게 되거나 상징 그 자체가 실재로 이해되어 실재에 대한 접근은 더욱 차단되고 상징의 우상화가 심화되어 갔다.

종교개혁은 이런 상징과 실재의 전도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상징이 전하려고 하는 실체에 대한 만남과 경험을 회복하되 지적 인식을 통해 극복,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을 바꾸어 자국어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상징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징의 메시지가 공동의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예식들 속에 수반되는, 여러 오해를 줄 수 있는 의례들을 과감하게 탈피하거나 설명이 가능한, 간소한 것들만 남겨놓고자 노력하였다.

고려하는 예배, g. 회중의 적극적 참여가 있는 예배 등이다. Cf. 김순환, 「21세기 실천신학 개론」(서울: CLC, 2006), 57–62.; 김세광은 또한 다른 각도에서 오늘날의 예배 경향을 진단하며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다양성(diversity), 항구성(constancy), 자발성(spontaneity), 당위성(oughtness), 개인성(individuality), 및 공동체성(corporate). Cf.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221.

상징영역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오늘날 일부 극단적 이해나 해석과 달리 매우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성례전에 대한 실행과 그 중요성은 주요 종교개혁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세례와 성찬 등의 총체적 상장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고 간신히 신학적 바탕 위에 더욱 공고하게 세우고자 하였고 그 실행에 대한 바람도 당시의 정치, 사회적 저항 속에서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개혁자들의 의지와 달리 불행하게도 복음의 상징적 구현인 성례전에 대한 후대의 계승 정도는 매우 약화되고 말았다.

2) 신학적 관점: 신앙과 교리의 변질과 회복

메시지의 매개가 그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실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신학적, 교리적 내용의 오류도 나타났다. 성서시대의 구전전통이나 초대교회의 반기독교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더욱 역동적으로 전달되고 그 실질적 영향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신앙과 신학의 내면성에 대한 열의가 약화되고 그것의 전달 매개인 외적 형식과 상징에 기독교적 정체성의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면서 실체에 대한 경험의 열도를 약화시켜 갔다.

예배의 의례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의 본질들은 이성 인식의 기능을 통해 끊임없는 검토와 간신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이런 이성 인식의 과정을 또한 예배 안의 상징 경험을 통해 파도한 이성적 설명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는 이런 상호 순환적 검토와 검증의 단계들이 무시되고 상장만이 지나치게 성경을 압도하게 되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오류와 변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상장성에 대한 오해를 교리적으로 정당화하고 그것을 고착시키는 잘못된 철학이나 신학적 논증들을 채용함으로써 교리적 오류를 심화시켰다. 초대교회의 역동적 구두전통과 그것이 경전화되어 그 안에 전수되어온 성경들은 부차적인 증빙본문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오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우선 말

씀 중심을 앞세우고 성경과 예배의 실제 사이의 일치를 추구했다. 성례전과 예배 내의 의례들에 대해 성경적 근거에 따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시정하려 하였다. 물론 루터의 예식이 보수적인 신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토마스 크랜머의 첫 공동 기도서(1549) 등이 새로운 개혁을 위해 잠정적이고 완충적인 역할을 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오늘날의 오해와 달리 상장성이 지니는 복음 담지 및 전달의 역동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중요시 했다. 대륙의 개혁자들, 특히 칼빈이나 츠빙글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 주로 세례와 성찬에 집중한 반면 루터나 영국교회 개혁자들은 여타의 상징의식을 살리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3) 관계적 관점: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의 왜곡과 회복

예배의 왜곡과 변질은 곧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의 왜곡과 변질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직접적 관계가 간접적 관계로 변질되었다. 즉 메시지의 전달자들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메시지의 독점적 지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원활하고 순기능적인 메시지의 직접적 교환 과정을 변질, 왜곡, 또는 지체시키는 일을 하였다.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예배자들이 주변인이 되고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직자들은 모든 예배의 독점적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런 점은 성례전의 신비화와 무관치 않다. 즉 상장에 의한 메시지 전달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상장의 신비화로 와전되고 그 와전된 상장을 안수 목회자들이 독점적으로 집전하게 되면서 예배자의 소외, 성직독점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 초대교회부터 복음의 순수하고도 사도적인 보존과 전달을 위해 특정한 직임을 세워 이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례전을 고유하게 수행토록 한 일이 중세에 와서는 곧 바로 예배자의 철저한 주변화와 소외를 가져왔다. 교직자들만이 신비화된 예배의 집전자였고 대리자였으며 회중은 그들의 중재에 의존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중세 교회가 집례자들끼리 주고받는 기도, 침묵의 기도 등이 그 한 예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간

의 관계는 간접적이면서 왜곡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관계의 왜곡을 시정하고 있다. 세례가 공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다든지 알이들을 수 없는 언어나 집례자들 간의 기도 등을 없애고 중재적 기능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희생제사 신학을 배제시켰다. 영국교회의 경우 1552년 개혁을 통해 성찬상을 동쪽 끝에 두어 회중의 관람과 경청을 불가능하게 했던 점을 시정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치인 성가소(chancel)로 옮기는 일을 하였다.

2. 미래적 전망

앞서 살펴본 대로 예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곧 복음 전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 그 예배는 시대를 거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매개를 형식으로 떠아왔다. 이는 예배의 미래적 모습에서도 그같은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또한 교회는 그같은 전달 매개 수단의 여러 변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미래적 전망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배와 영상의 유관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수 많은 전달 매개 수단이 존재하지만 우선 영상을 통해 예배의 대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일은 이미 오랜 일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촬영 기법 등을 다변화시켜 일면 예배자들에게 입체적 시야를 가지고 예배의 참여감을 높이고 감성적 동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화면 조명 기법을 사용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조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모두다 긍정 요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도한 시각 위주의 예배 운용은 예배자의 묵상(contemplation)을 방해하며 이목을 끄는데 집중하는 영상 기법들은 실물을 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사고의 통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예배의 형식화 가능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해결 속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또 지성전 체제의 확대와 중계 예배 방식에 대한 논란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도시화 현상의 한 결과로서 교회 대형화와 함께 본교회와 지성전 간의 중계예배 방식도 증대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도자들과 교회들에 대해 미디어가 만들어낸, 다소 실체와 거리가 있는 이미지의 효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회중들의 갈망과 선택이 한 요인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중계 예배가 차안적 방법으로 불가피하여 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무조건 그 자체를 예배 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단언하기 보다는 당장의 목회돌봄의 부실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회중이 처한 상황과 다른 현실 속의 목회자가 실질적 의미에서 예배 회중을 위해 충분한 목회돌봄을 해 낼 수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작 이런 예배의 문제점은 과도한 대중성 의존, 문어발식 기업 이미지에 기초한 신앙의 순수성 저해 등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시한 대로 점단 정보화 상황과 그 이기(利器)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라디오와 TV는 물론이고 쌍방적 인터넷 방식의 예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교회가 인공위성의 전파를 대여하여 소속 신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유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의 쌍방 기능까지 함께 장착하여 토요 휴무 및 휴일 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오늘날 그 활용도가 더욱 확대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신은 자칫 예배 공동체의 무력화 내지는 해체 가능성을 갖고 있음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이다.⁴⁸⁾

마지막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성찬 실행이 중시되는 예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이다. 이 점은 교회들의 대중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피할 수 없는 역기능적 측면들이 부각될 때마다 그에 대한 반성과 간구 노력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 전통에 대한 회복과 실천을 통해 당면한 예배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

48) 김순환, 『21세기 예배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28-41

부언하자면 교회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예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대비란 무엇보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문명적 진보 속에서도 결국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과제요,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서면서 동시에 외적인 변화들은 본질적 토대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언제든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전통(성서와 역사)과 현대라는 두 축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그레트라인, 크리스티안. 「예배학 개론」. 김상구 역. 서울: CLC, 2006.
-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순환. 「예배학」 「21세기 실천신학 개론」. 서울: CLC, 2006.
- _____.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Adam Adolf. *Foundations of Liturgy: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Practic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2.
- Baldovin John F. "Christian Worship to the Eve of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 Bettenson Henry(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London: Oxford Press, 1947.
- Bouyer Louis. *Eucharist: Theology and Spirituality of the Eucharistic Prayer*. Notre Dame/London: Univ. of Notre Dame Press, 1968.
- Cabie Robert. *The Church At Prayer: The Sacrament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8.

- Jurgens(ed) W. A.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 Maxwell Willam.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 Thom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d Publishing Company, 1962.
- Tranvik Mark D. "Baptism" in *The Or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I*.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Wakefield Gordon.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Edinburgh: T&T Clark, 2000.
- Wegman Herman. *Christian Worship in East and West: A Study Guide to Liturgical History*.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5.
- White James. *A Brief History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White Susan. "Christian Worship since the Reformation" in *The Making of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for contemporary churches to constantly anticipate and prepare the Christian liturgies for the future in new circumstances. Future worship services will be closely related to and interwoven with various cultural and sociological environment, or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environment. To deal with such issues, it

is also significant to first search for theolog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shown in the liturgical developments in Christian history because they are invaluable sources and mirrors for liturgical application in particular circumstances. Reformation period is above all significant in that it was a meaningful and momentous time for renewal and reorientation of Christian worship severely distorted in the wake of medieval ages. Principles and strategies shown in reformational efforts for worship by leading reformers will be significant insights and ideas to deal with the prospective and multifaceted aspects or related issues in the future worship such as more frequent utilization of screen media, more active use of live broadcasting system between local parish temples, and possible heavier reliances upon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system both for pastoral care and worship.

[주제어] 미래 전망, 성찬, 세례, 예배, 예식

[Key Words] Prospective Future Worship, Eucharist, Baptism, Worship, Liturgy

한국감리교회 세례 예식에 대한 연구

박기성 박사(춘천신성교회)

들어가는 말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예식이다. 한 사람이 이러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탄생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분의 일생과 죽음과 부활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¹⁾ 따라서 세례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해지는 경축적 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느껴지는 세례는 생명력과 감격이 사라지고, 경축의 분위기도 상실되었다. 이제 세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와 함께 통과 의례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세례를 받기 전이나 그 후에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달라진 변화를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결과로 보여지는 교회의 대형화 추세와 교인들의 자유적인 신앙관으로 더욱 가속

1) 대한성공회 선교교육원, 「성사와 교회생활」(서울: 대한성공회 출판부), 49, 205.